

# KOICA의 취약국지원전략

강서미 한국국제협력단 지역조정팀

## 목차

- I. 취약국에 대한 지원전략의 필요성
- II. KOICA의 취약국가 지원 현황
- III. KOICA의 향후 취약국 지원전략

## I. 취약국에 대한 지원전략의 필요성

취약국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OECD는 국민에게 기본적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의지 부재, 취약한 거버넌스, 제한된 행정능력, 만성적 빈곤, 비인도주의, 지속적 사회갈등, 폭력 및 내전 등의 심각한 사회 문제를 갖고 있는 국가로 정의하고 있다(OECD 2007). 세계은행은 약한 거버넌스, 제한된 행정능력, 폭력, 갈등과 같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 국가를 취약국으로 본다(Menocal 외 2008). KOICA와 같은 원조기관인 영국의 DFID는 국민들에게 핵심기능을 제공할 수 없거나 하지 않는 국가, 캐나다의 CIDA는 국민에게 정부의 기본기능을 제공할 수 없는 국가, 그리고 미국의 USAID는 국민에게 안전과 기본적 서비스를 보장하려는 능력 또는 의지가 부재한 국가로 정의한다(권혁주 외 2010).

위의 정의는 모두 조금씩 다르겠지만, 공통된 핵심을 분석하자면, 취약국가는 분쟁이나 부패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적 삶의 질을 보장해주어야 하는 정부가 능력을 상실했거나 의지가 부족하여 기본적 공공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국가이다. 국가들의 소득수준과는 별개로 취약국가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최빈국은 아니지만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나이지리아, 짐바브웨, 카메룬, 코트

다부아르는 취약국으로 분류되며, 최빈국이지만 세네갈과 잠비아는 거버넌스가 양호한 극빈국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차이는 KOICA가 현재 지역별 분류 및 소득 수준별 분류에서 더 나아가 특수상황, 즉 거버넌스 취약성, 기후변화에의 취약성, 젠더 문제를 중점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상부(umbrella)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려는 이유이다.

취약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을 “The Bottom Billion”에서는 외적인 현상인 기본 사회인프라의 부재가 아닌 분쟁의 뿔, 천연자원의 뿔, 나쁜 이웃을 둔 내륙국의 뿔, 그리고 작은 국가의 나쁜 통치의 뿔으로 규명하고 있다(Collier 2007). 이 취약국 반열에 오른 국가들, 그 안에 속한 10억의 인구는 1980년도에 연 0.4% 경제적 쇠퇴를 경험하였고 1990년도에는 연 0.5% 하락, 그리고 2000년도에는 1970년대의 경제수준으로 퇴보하는 결과를 낳았다(Collier 2007, p.9). 일반 개도국과 취약국이 차별화되어 분석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 둘간의 간극이 매년 벌어지고 있어 같은 개도국으로 분류해서는 그 둘의 다른 국가적 필요를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두 그룹간의 경제적 간극은 1970년대에 연 2%에서 1980년대에는 연 4.4%, 그리고 1990년대에는 연 5%로 벌어졌다(Collier 2007, p. 10). 개도국간의 다양성, 차이를 인식하고 이러한 취약국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다.

## II. KOICA의 취약국가 지원 현황

KOICA는 현재까지 대륙별 지원전략과 세부적인 국별 지원전략을 수립하여 파트너 국가를 지원해 왔다. 즉, 취약성이 짙은 국가는 그 개별 국가지원전략 수립시 이를 지원전략에 반영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아시아의 경우 국별 격차와 개발 과제의 차이에 따라, 국가별 우선 개발 과제를 분석하고 과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을 선정·지원하였다. 아프리카 또한 각 국가별 경제발전 수준 및 개발필요에 따라 지원을 차별화하여 사하라이남 국가에는 보건의료, 교육, 농어촌개발 지원을 통한 MDGs 달성에 주력하고, 북아프리카 지역에는 기후변화 대응, 행정제도 개선 등에 집중하는 한편, 최빈국에 대해서는 지원규모 확대와 기본 사회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 있다. 중남미 원조는 빈곤층 역량강화 등 중남미의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빈곤층을 위한 성장전략(Pro-Poor Growth)에 중점을 두고 있어 기본 사회서비스 제공과 거버넌스 개선 및 투명성 제고,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취약국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전략보다는 지역별 분류에서 국별특성을 고려하여 지원전략을 수립하였다. “한국국제협력단의 취약국 지원 방안”에서 제시하는 분류에 따르면(OECD

LDCs, OECD/DAC FSG, WB LICUS, CIDA CFIP) 지금까지의 KOICA 56개의 일반 및 중점 협력 대상국 중 취약국가에 해당하는 국가는 총 11개 국가이다(권혁주 2010). <표 1>은 2010년 KOICA의 국별 지원전략 중 취약국들에 대한 지원전략을 국별로 요약한 것이다. 이를 보면, 기본 사회인프라가 부재하고 정부의 행정역량이 미비함에 초점을 두어 교육 및 보건의료 등 기본 사회서비스 제공과 행정역량 강화지원에 중점을 두어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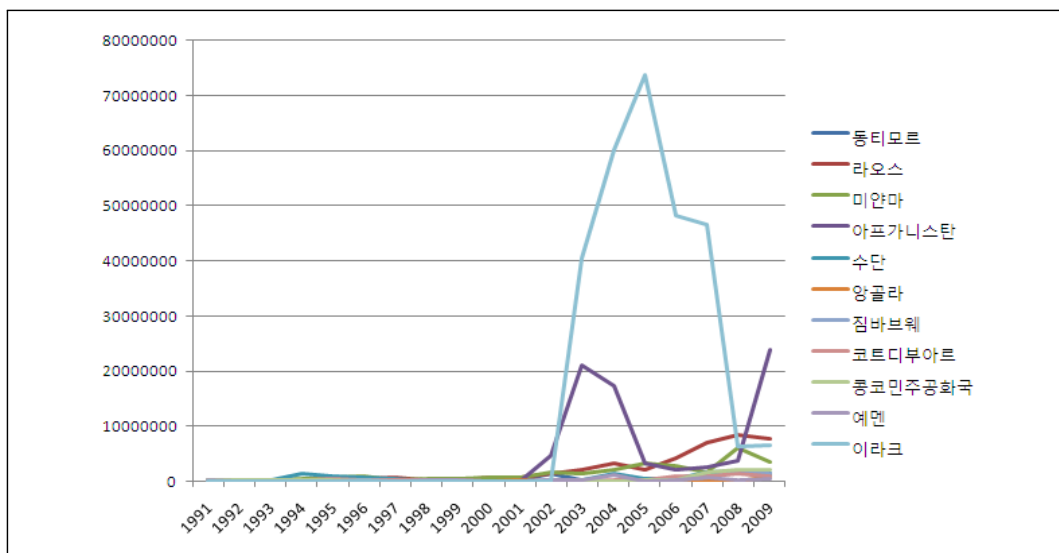
〈표 1〉 취약국별 지원전략

분류	국가	지원전략
아시아 (4국)	동티모르	- 기초교육 강화 및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빈곤완화, 신생독립국으로서의 정부역량강화에 집중 지원
	라오스	- 도농 간의 격차감소를 위한 농촌지역 내 빈곤감축, 기초의료시설 및 식수 접근성 강화, 양질의 인적자원 육성 및 라오스 정부의 행정능력 배양을 위한 사업을 중점 지원
	미얀마	- 재해복구 지원, 보건 및 생활기반 사업 등 인도적 사업 분야 우선 지원 - 기술·직업훈련, 교육, 농촌개발 등 미얀마 국민들이 직접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분야 사업 지원 - 국제사회의 대 미얀마 제재 논의 동향 및 민주화 진전 상황 주시
	아프가니스탄	- '08.6월 파리 아프간 원조 공여국회의에서 향후 3년간('09~'11) 3천만불 지원약속. 평화구축을 위한 인프라건설, 인력양성에 중점을 둔 지원 (직훈, 의료지원) - 바그람 PRT 지속지원, 파르완 PRT 신규지원 - UNDP와의 공동연수
아프리카 (5국)	수단	- 보건의료 : 안전한 식수보급 확대, 전염병 예방 및 퇴치 - 교육 : 직업훈련기반강화, 기초교육 기회 확대 - 농촌개발 : 농수산업 인력양성 및 기술이전, 농수산업 생산성 향상
	앙골라	- 농촌경제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분야를 집중 지원 - 기초교육기회 확대 및 직업훈련기반 강화
	짐바브웨	-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보건환경 개선, 농업생산성 향상 부분 중심 지원 - 행정제도 등 인적자원개발 및 거버넌스 향상 지원
	코트디부아르	- 재건에 필요한 경제사회 문제 전반을 아우르는 보건의료, 지역개발 그리고 인력부재를 겪고 있는 정보통신 분야를 지원
	DR콩고	- 사회기반 시설 파괴로 기본사회인프라가 부재한 바, 보건의료 분야 중점 지원 - 낙후된 농촌지역 및 농업분야 생산성 제고를 통해 빈곤 및 기아 인구 감소를 지원
중동 (2국)	예멘	- 최근 예멘의 치안상황이 불안정한 점을 감안, 행정제도, 산업에너지 분야의 연수프로그램 중심으로 추진(행정제도, 산업에너지, 교육, 농어촌개발)
	이라크	- 이라크 재건복구를 견인할 인력양성 부문 대폭 확대하여 이라크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 - 2차 재건계획에 따라 중앙 및 남부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쿠르드지역은 프로젝트 사후관리 중심으로 실시 - 교육 : 고등교육환경 개선, 직업훈련기반 강화 - 보건의료 :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보급 확대, 안전한 식수보급 확대 - 행정제도 : 행정역량 강화 및 제도구축, 민간경제 활성화 - 산업에너지 : 에너지 인프라 개선, 국가교통 인프라 개선

출처 : 2010년 KOICA 대외무상원조 사업계획 자료 재구성

하지만 <그림 1>에서 보여지듯 정세가 불안하고 정부의 역량부족으로 취약성이 극화되는 이 나라들에 대해 KOICA는 많은 경우 원조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보장하지 못하였다. 이는 그간 취약국에 대한 전문화된 지원전략의 부재와 정부 출연기관으로서의 독립적 정책결정권의 한계가 그 이유라 하겠다. 향후에는 “whole of government” 접근법을 통해 범정부적인 대 취약국 전략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하고 예측가능하고 일관된 개발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의 필요성에 대한 대외적인 홍보와 정부기관내 이해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1> KOICA의 취약국가 지원추이(1991~2009)



출처 : KOICA 통계사이트 자료 재구성

KOICA는 전쟁,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평화구축’을 위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팔레스타인을 지원하고 있다. KOICA의 대취약국 지원현황 분석을 위한 사례로 이하에서는 취약국가 중 상대적인 지원규모가 크고 지원전략의 초점이 재난복구에 맞춰져 있으며 KOICA의 현장 활동 역량이 비교적 갖춰진 이라크 사업을 검토해 본다.

## 사례예시) 이라크 재건지원 현황

### ① 지원현황

사업협의, 집행, 관리 및 평가에 있어서 현장 중심의 원조수행을 위해 KOICA는 현재 이라크 바그다드와 아르빌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각각에 KOICA 인력 두 명이 주재하고 있다. KOICA는 2009

년까지 이라크에 총 2억8천289만불을 지원하였다. 90년대에는 긴급지원, 물자원조, 연수생초청 사업과 같은 일회성 및 기술협력 사업에만 국한되었던 지원을 2003년부터 프로젝트 사업 수행에 까지 그 범위를 넓혔다. 2009년까지 프로젝트는 총 25건, 개발조사는 1건, 연수생초청은 3,062명, 전문가 파견은 12명, 물자지원은 78건, 긴급원조는 1건, 국내 NGO 활동 지원은 21건이다. 그리고 올해의 신규 프로젝트 사업 3건까지 합하면 프로젝트로는 총 28건을 지원한 것이다.

〈표 2〉 이라크 프로젝트 사업 목록(2003~2010)

분야	사업명
교육 (13건)	이라크 18개 국립대학 인터넷실 설치지원사업(2003~2005/250만불)
	바그다드 대학교 IT 인프라 구축사업(2004~2005/250만불)
	한-이라크 직업훈련원 건립사업(2003~2006/900만불)
	시범학교 건립사업(2005~2007/1,000만불)
	살라하딘대학 어학실(2005/60만불)
	아르빌 IT 훈련센터 건립(2006~2008/450만불)
	아르빌 도혹 술레마니아 어학실습지원(2007/150만불)
	이라크 인바르 직업훈련원 역량강화사업(2008~2009/230만불)
	이라크 어학실습실 지원사업(2009~2010/120만불)
	이라크 술레마니아 직업훈련센터 지원사업(2009~2010/150만불)
	이라크 술레마니아 시범학교건립사업(2009~2011/600만불)
	이라크 바그다드 초중등학교 학교시설 개선사업(2010~2011/150만불)
	이라크 아르빌 카스나잔 초등학교 건립사업(2010~2011/250만불)
보건의료 (9건)	알카라마 병원 증축, 개선사업(2003~2006/800만불)
	아르빌 상하수도 현대화 사업(2005~2006/600만불)
	아르빌 리즈가리병원 현대화사업(2006~2007/700만불)
	바그다드 이맘알리 병원 화상센터 건립사업(2007/300만불)
	나자프 알사드르 병원 이동진료팀 설립사업(2007/260만불)
	남부지역 기초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이동진료팀 구축(2008~2009/300만불)
	바그다드의대 등 3개 의과대학 의학연구센터 지원(2008~2009/400만불)
	이라크 아르빌 상수도 침사지 설치사업(2009~2011/350만불)
행정제도 (4건)	바스라 등 3개 지역 이동진료팀 구축사업(2010~2011/300만불)
	교통관리시스템 현대화(2005~2006/500만불)
	아르빌 품질관리연구소 현대화사업(2006~2007/300만불)
	중앙표준품질관리원 기능강화사업(2006~2007/300만불)
인프라 (2건)	이라크 고등학교 증명서 발급 데이터베이스 구축지원사업(2009~2010/125만불)
	기획개발협력부 청사개보수사업(2006~2007/1,000만불)
	아르빌 소수력발전소 건립사업(2007/980만불)

\* 동 분류는 KOICA 사업분류에 따른 것이 아닌 수요자 입장에서의 분야별 분류임.

출처 : KOICA 통계사이트 및 2010년 KOICA 대외무상원조 사업계획 자료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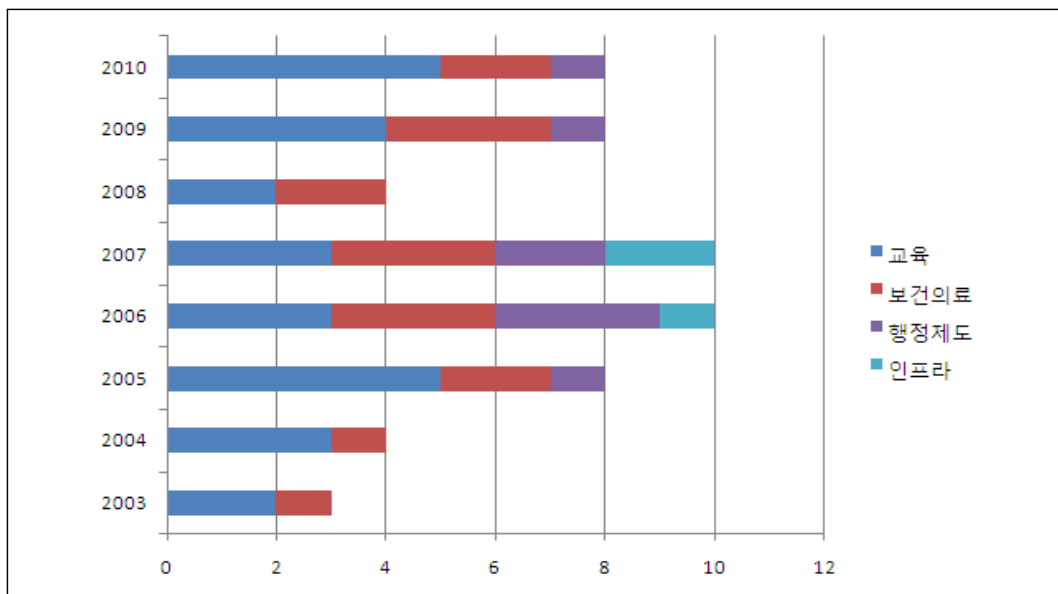
KOICA는 우리나라의 1차 이라크 재건지원 프로그램(2003~2007) 및 2차 지원(2008~2011)을 통해 바그다드와 아르빌(자이툰 부대 파병지)에 주로 교육·보건·행정제도 분야를 중점지원하는 등 기본 사회서비스 제공에 집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2〉 참조). 이라크는 전쟁 후 보건·사회·건축·전기전자 분야 등 대부분의 사회간접시설 및 사업시설 등이 파괴되었고, 특히 경제 봉쇄 및

전쟁으로 인한 보건의료체계의 전반적인 붕괴로 동 분야에 대한 재건복구가 시급한 문제였다. 또한, 인적자원은 재건의 기본 토대가 되며 지속적인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필수요소로 기초교육 및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을 우선시하였다.

이라크측 요청사항에 부응하면서도 실질적인 의료분야 역량강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기자재 지원과 더불어 연수생 초청 사업을 통해 인력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술이전을 지원하였다. 특히, 선진 의료기술의 전달을 통해 지난 10년 동안 제대로 된 훈련과 교육을 받지 못해 질적으로 낙후되어 있던 이라크 보건의료 인력수준 향상에 기여하였다. 이동진료시스템 구축사업의 경우, 원거리 및 저소득층 주민 대상 의료서비스 제공과 이동진료차량, 의료장비 등 제공 및 초청연수 실시를 통한 기술전수로 사업지역 보건의료 수준향상 및 재건복구 토대 마련에 기여하였다.

연도별 변화추이를 살펴보면(〈그림 2〉 참조) 교육과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은 일정규모를 유지 또는 증가하는 반면, 정보통신, 행정제도, 인프라에 대한 지원은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있다. 교육사업은 주로 기초교육 또는 직업훈련과 같은 인적자원개발 및 소득증대를 위한 역량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보건의료는 기초의료서비스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교육 및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은 타당한 것으로 평가되나 특히 유휴노동 흡수 효과가 다대한 인프라 사업을 재건시기 초기에 시행하지 않은 점과 행정제도 역량강화 사업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고 산발적인 점은 향후 취약국가에 대한 지원전략수립 시 개선되어야 하는 점일 것이다.

〈그림 2〉 연도별 변화추위(연도별 계속 및 신규사업 포함)



기 지원된 사업에 대한 평가 검토를 위해 KOICA에서 실시한 사업종료평가를 참고하였다. 수원기관과의 역할분담이 약속대로 이행된 사업들은 성공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표 3> 참조). 특히, “도혹 및 술레마니아 대학교 멀티미디어 어학실습실 설치사업”의 경우와 같이 수원국 지방정부와의 협의로 소외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사업의 발굴은 향후에도 지향되어야 할 점으로 보인다. 또한, 전 사업에 있어 수원기관과의 명확한 업무분장을 통한 수원국의 주인의식 함양 및 지속성 강화를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수원기관이 동 기관에게 할당된 부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화와, 필요시 기술협력을 지원하는 등 사업집행 과정 전반에 있어서 취약국가의 역량강화에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향후 취약국에 대한 사업평가시 수원기관 및 정부와 공동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평가에 추가되어야 할 평가 항목으로 수원국과의 협의과정에 대한 기술과 기 지원된 사업과의 연계성 및 일관성, 그리고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평가를 들 수 있다.

〈표 3〉 사업종료 평가 요약

사업명	종료평가 총평
도혹 및 술레마니아대학교 멀티미디어 어학실습실 설치사업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RG(Kurd Regional Government)는 후세인 통치시절 교육분야 정부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으로 특히 전문교육 기자재가 수반되는 고등교육은 이론 위주의 명목적 전문교육이 실시되어 왔던 만큼 사업타당성이 높았다.</li> <li>- 지역간 교육기회 균등화에 일조하고 인재양성을 통한 취업을 향상에 기여하여 향후 분쟁예방에 간접적으로 일조한 것으로 평가된다.</li> <li>- 아르빌에 비해 치안 등의 외부 요인으로 지원이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지역에 최초로 시행된 프로젝트 사업으로 동 지역에 이후 추가지원의 교두보가 된 사업이다.</li> <li>- 수원국은 건물제공, 우리측은 기자재 및 인력역량 강화 등으로 업무분장을 통해 수원기관에는 오히려 배양, 우리는 단기간내 사업완료를 통한 안전문제 발생 가능성 사전차단의 효과가 있었다.</li> <li>- 지원사업 인력들의 통합 사후운영교육을 통해 지원효과 재점검 및 지속성 담보가 필요하다.</li> </ul>
아르빌 IT 훈련센터 건립사업 (2006~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원기관의 의지와 관련 자원 투입 가능성 등 사업참여도가 사업종료 후 원활한 운영에 필수적인 것으로 파악되며, 이를 위해 사업형성 및 실시 단계에서 수원기관의 자체역량을 평가 및 강화하는 것이 사업의 주요 성공요소인 것으로 평가된다.</li> <li>- 자체수익 사업 개발로 지속가능성이 향상되었다.</li> <li>- 사업에 참여한 각 기관들이 긴밀한 협조 속에서 사업목표를 무난히 달성하였으며, 수원기관 역시 사업실시 및 자체 운영 단계에서 적극적인 열의와 적절한 자원을 투입하여 쿠르드지역 최고의 IT 훈련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수사업으로 평가된다.</li> </ul>
아르빌 상하수도 현대화 시범사업 (2005~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입 대비 실적과 성과가 좋은 프로그램으로 판단된다.</li> <li>- 오랜 전쟁으로 인한 기초 생활 인프라가 취약한 현지 상황에 시의적절한 사업이다.</li> <li>- 수행 경험과 노하우를 많이 축적한 기관을 사업주체로 선정하여 추진함으로써 효과적인 수행과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li> </ul>
아르빌 교통관리 시스템 현대화사업 (2005~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공 후 3개월이 경과되도록 운전면허시험장 및 관련 교통관리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고 있었다. 사전계획 및 실시 단계에서 KRG 내무부 교통경찰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라크측의 사업 종료 후 운영계획을 검토하고 미비한 부분을 보완시켜 이라크측이 운영을 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배양하는 등 사전 준비가 필요했다.</li> </ul>

## ② 2011년 신규사업 발굴

그간 KOICA는 취약국가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사회적 불안의 근간이 되는 기회의 불평등을 완화하고자 개발수요가 많고 절실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 노력하였다. 또한, 수원국의 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원국의 국가개발계획에 부합하고(프로그램 접근법) 수원국이 지원을 요청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하고 있다. 수원국 중심 사업 발굴을 위해 KOICA 현지 사무소는 수원총괄기관을 포함한 중앙정부 그리고 사업대상지역의 지역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내용을 구체화하고 보완해 간다. 그리고 관련 분야 전문가의 사업 타당성에 대한 현장 검토를 통해 사업 지원 가능여부를 결정한다. 사전조사시에는 동 사업의 젠더·거버넌스·환경 등 범분야 이슈(cross-cutting issue)에 대한 영향도 함께 분석한다.

이러한 사업 발굴 원칙에 입각하여 KOICA 지역조정팀은 금년 8월에 2011년 대 이라크 신규사업에 대한 사전조사를 진행하였다. 지금까지 바그다드와 아르빌 지역에 집중되었던 지원을 여타 지역보다 생활수준이 낮고 개발수요가 많은 쿠르드 지방정부(Kurd Regional Government, 이하 KRG) 관할지역인 도훅(Duhok)주에 대한 사업발굴에 집중하였다. 이라크 정부 자체 국가개발계획(National Development Plan)상 KRG의 5개년(2011~2014) 개발계획 프로그램(KRG Development Strategies)은 교육과 보건의로 분야에서의 사회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 이에, KOICA는 도훅주 관계자와 KRG 기획부 등 수원국 관계자들과 직접 협의하고 사업대상지 마을에 대한 현장조사를 수행한 결과 2011년도 KRG 지역 신규사업으로 지역정부가 요청한 시범학교 건립 사업과 식수개발 사업을 반영기로 하였다.

더불어, 향후 사업추진 시에도 지역정부 산하 집행기관과 협의하에 추진토록 하였다. 기본설계는 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에서 하되 실시설계는 현지 사정에 밝은 현지 설계업체에서 설계와 시공을 일괄 진행하는 방향을 검토 중에 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종료 후 지속가능성 그리고 간접적인 영향인 역량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사업진행 전반 단계에서 지역정부 담당 부서 직원의 참여 및 수원국의 주인의식 함양을 위한 수원국측 소규모 부담사항을 사업계획에 포함한다.

위에서는 KOICA의 대 이라크 지원실적과 신규사업 추진현황을 기술함으로써 사전조사 단계에서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취약국가의 자체 국가개발전략과의 부합성 그리고 수원국의 역량강화에 대한 고려가 사업추진 과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보여주려 하였다. 이 외에도 KOICA는 취약국가 지원의 효과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향후 취약국가 중장기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취약국가의 특성을 고려한 ODA를 실시할 계획이다.



### III. KOICA의 향후 취약국 지원전략

국별지원전략 수립에서 더 나아가 큰 틀에서 취약국 지원전략을 체계화하여 수시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보다는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수원국의 재건 및 안정화에 일조할 필요성이 크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입각하여 KOICA는 현재 다양한 변화를 시도중이다.

KOICA 2010~2015 선진화계획은 국정과제와 KOICA의 원조효과 제고를 위한 노력으로 금년 말까지 취약국 지원에 대한 DAC 규범을 검토하여 동 분야에 대한 KOICA 가이드라인 수립계획을 명시하고 있다. 이의 수행을 위하여 첫째, 동 분야의 전문성을 감안, 분쟁 및 취약국가 지원전략 전담 인력을 배정하였다. 동 담당자는 OECD/DAC ‘분쟁 및 취약성에 관한 국제 네트워크(INCAF)’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규범 및 그간 교훈들을 체내화하여 KOICA의 취약국 지원전략을 수립할 것이다.

둘째, 기관 내부 가이드라인 수립 이전에 외부기관의 중립적인 의견청취를 위해 현재 외부기관에 ‘KOICA의 취약국 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를 청탁하여 수행중이다. 여기서는 취약국 분류법, 취약국 지원에 대한 국제규범, 타 선진원조기관의 사례 등을 검토하여 KOICA가 취해야 하는 취약국 개발지원전략 수립에 대한 제언을 제시할 것이다.

셋째, 국제사회에서 취약국으로 분류되는 에티오피아에 대한 국별지원전략을 시범적으로 수립했다. 이를 바탕으로 타 취약국에 대한 지원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에티오피아는 대외적으로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의 에리트레이아와의 전쟁, 그 이후에 계속되는 국경문제, 소요사태에 놓인 소말리아를 이웃 국가로 두고 있으며 에티오피아가 지원했던 소말리아 정부군의 세력 약화, 그리고 대내적인 분리주의자의 활동 등으로 에티오피아는 분쟁에 취약한 국가이다. 동 연구결과 중 중요 시사점으로 꼽을 것은 지역협력의 중요성을 지적한 것이다. 이것은 에티오피아의 내륙국으로서의 특징에서 기인하는 제한점(이웃국을 통한 세계시장 접근, 나일강 사용에 대한 협의, 지역 간 무역의 필요성)을 제외하고서라도 주변국의 분쟁이 에티오피아로 흘러들어오지 않도록 에리트레이아와 소말리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협력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공여국이 윤활유 역할로서 개발사업 검토시 이웃 국가와 연계한 개발사업의 발굴을 염두에 둘 것이 요청된다.

위의 기 추진되고 있는 노력 외에도 향후 취약국 지원시 고려되어야 할 쟁점들이 있다. 취약국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에서 대두되는 화두 중 공여국에 국한되어 제기되는 것에는 “the whole of government” 접근법이 있다. 일반 개도국도 공여국의 다양한 정치·경제적 결정에 영향을 받겠지

만 취약국은 그러한 개입에 더 크게 노출되어 있다. 그리하여 개발전략이 일관되게 적용되어 취약국 개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공여국의 범정부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 국방부, 외교부, 기재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개발사업을 관장하는 개발원조기관과 일관된 정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간 정책협의의 장이 더 활발히 마련되어야 하겠다.

최근에 OECD (2010) 보고서에서는 2006년에 공표된 취약국가와 취약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모범적인 개입원칙의 이행여부를 취약국 6개국을 대상으로 관련 이해당사자들과의 정량·정성 분석을 통해 중요 시사점을 이끌어내고 있다. 그 중 KOICA의 향후 취약국가 지원전략에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몇 가지 논점을 이 곳에 제시한다. 분쟁 예방을 위한 경제활동의 기회, 특히 인구 수가 집중되고 있는 청소년 및 청년층에 대한 중점 고려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직업훈련 분야에 많은 노하우를 축적한 우리의 비교우위가 취약국에서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와 더불어, 민간 부문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도 지적되어 현재 시작단계에 있는 민관 협력사업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취약국가의 행정부담을 덜고 수원국내 혼란을 방지하고 안정되고 일관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원조공여국간 조화를 강화하여 공동 분석, 업무 분장, 공통된 보고형식 도입 등 타 공여기관과의 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산후 원조국으로서 우리는 선진원조국의 원조모델을 답습하게 되었고 이제는 OECD/DAC의 신참 회원국으로서 현재 새천년개발목표의 사회인프라 개발에의 초점에 부응해야하는 위치에 놓여있다. 이 와중에 우리는 우리만의 색깔과 비교우위를 찾아 우리 개발원조의 차별화를 도모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한국형 개발원조 모델에 대한 논의는 주로 용두사미 식으로 거론만 되었지 심층적이고 실제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개도국이 바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경험으로서 전수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개발의 두 중심 축이었던 경제개발과 인적자원 개발이다. 향후 새천년개발목표 달성 시기인 2015년 이후 우리의 대 개도국 개발원조의 초점은 이 두 분야에 대한 이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취약국에 대한 개발원조 전략은 이러한 큰 틀에서 또 어떻게 다르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권혁주 외 (2010). “한국국제협력단 취약국 지원 방안—중간보고서”. KOICA

Collier, Paul (2007). The Bottom Billion, The Oxford University Press, USA.

Menocal, Alina, Timothy Othieno, Alison Evans (2008). “The World Bank in Fragile Situations: An Issues Paper”. 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

OECD (2007). Principles for Good International Engagement in Fragile States and Situations, OECD, Paris, available at [www.oecd.org/dataoecd/61/45/38368714.pdf](http://www.oecd.org/dataoecd/61/45/38368714.pdf).

OECD (2010). “Monitoring the Principles for Good International Engagement in Fragile States and Situations”. OECD Publishing, available at <http://www.oecd.org/dataoecd/18/16/44651689.pdf>